



코닥, 두바이 미디어 그룹과 프로스퍼 6000C 프레스 계약 고객 맞춤형 신문 · 고급 POD 인쇄로 스마트 인쇄 시작

코닥은 Dubai Media Inc(이하 DMI)에 코닥 프로스퍼 6000C 프레스를 설치하기로 했다. DMI는 중동지역에서 가장 큰 미디어 그룹으로 도입한 프로스퍼 6000C 프레스를 스마트 프린팅 서비스 중심인 두바이 고객들에게 고객 맞춤형 신문과 기타 고급 인쇄 서비스로 활용할 예정이다.

자료제공 | 한국코닥

인쇄 및 유통 부문 이사인 파이살 빈 하이더씨는 “두바이가 스마트 시티로 변화가고 있다. 이처럼 중요한 시기에 리더십에 대한 비전을 갖고 독보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어 코닥 프로스퍼 6000C 프레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코닥 프로스퍼 6000C 프레스가 그 몫을 충분히 해낼 것이라고 믿는다. 이 장비는 디지털 인쇄에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하며 놀라운 품질과 일일 생산성, 우수한 경제적 가치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DMI는 암스테르담 WAN-IFRA에서 코닥 프로스퍼 6000C 프레스 도입을 결정했다. Masar Printing and Publishing Company는 독자들이 주제를 골라서 구독할 수 있는 개별 맞춤형 신문을 제작할 예정이다. Masar는 코닥과 2007년부터 비즈니스를 해왔다. 현재는 코닥 넥스프레스 디지털 프레스, 코닥 제너레이션 뉴스 시스템, 코닥 트렌드세터 800 플레이트세터, 코닥 프리너지 코넥트 워크 플로, 코닥 매그너스 VLF, 코닥 소로나 XP & 뉴스 무현상 판재 및 코닥 써멀뉴스 골드 판재 등 코닥의 다양한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다.

더불어 프로스퍼 6000C 프레스를 도입함에 따라 고품질의 온디맨드 도서를 인쇄할 수 있고, DM에서 신규 수요를 대처할 수 있다. Kodak EAMER 지역 사장인 필립 컬리모어는 “두바이에서 프로스퍼 6000C 프레스를 도입한 첫 번째 인쇄업체가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코닥 기술을 통해서 효율적인 신문 및 출판물 제작이 가능하다. 고객이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품질을 충족시키는 스마트 프린팅 서비스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오프셋인쇄 수준 도서 3000부 제작 가능

인쇄 테크놀로지에 투자하는 것은 미래 성공의 기초가 된다. 도서출판 인쇄에서 인쇄사업자들은 수익률 높은 단기 부수의 작업들로 전환을 꾀하며 수익 확장 기회를 노리고 있다. POD는 재고비용을 줄이고 적시에 인쇄해 특정 주문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킨다. 코닥 프로스퍼 6000C 프레스는 이를 가능하게 하며 경제적 효율성을 높여준다. 오프셋인쇄 수준의 도서를 3000부까지 제작할 수 있다.

프로스퍼 6000C 프레스는 진화한 Intelligent Print System (IPS)으로 품질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해 훌륭한 품질을 구현한다. 향상된 IPS로 모니터링과 색상을 조정할 수 있다. 새로운 나노테크놀로지 잉크는 풍부한 컬러 개머와 고품질 인쇄를 가능하게 하며, 오프셋 인쇄물과 대등한 수준의 품질로 비코팅지, 코팅지, 글로싱지에 인쇄할 수 있다. 무광지, 비코팅지에서 분당 1000피트(300미터) 속도로 인쇄가 가능하며 한 달에 9천만장(A4용지)을 인쇄할 수 있다. ↻

